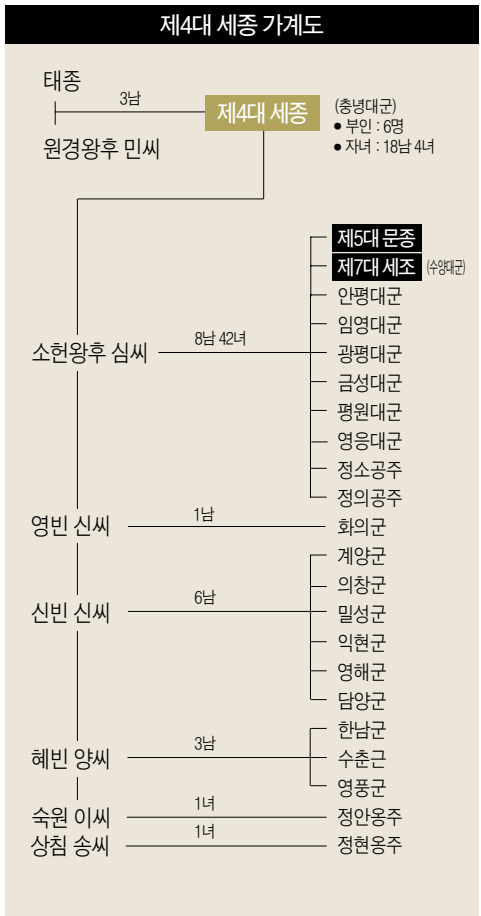




4대 세종 영릉(1)

세종 1397~1450년, 54세.  
재위 31년 6월. 1418년 8월(22세)~1450년 2월(54세)



영릉 전경.

“아바마마, 아바마마! 태상왕 전하!”  
완전한 영웅, 무결점의 완인(完人)을 우러르고 싶은 것이 민족들의 욕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그래서 신(神)이란 추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부처(각자(覺者))란 실체 구현에 매달리기도 한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세 살 많은 큰형 양녕대군은 일탈의 극치를 달리다가 폐세자가 되고 한 살 많은 둘째형 효령대군은 동생 충녕이 세자가 책봉되자 제행무상을 통감하고 절로 찾아들어 불교에 귀의했다. 화안사 중수를 건의하고 원각사 조성도감

제조(총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1465년엔 <바라밀다심경>을 언해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여 세종-성종까지 여섯 왕을 거치며 91세까지 살았다.

세종 치세 불교는 훈민정음 창제(세종 25년, 1443년, 세종 47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창제 이전 세종의 모습은 이러하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태종은 재위기간 중 네 번에 걸쳐 선위파등을 일으켰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선위파등, 탄핵파등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다. 태종은 52세에 세종에게 왕권을 넘겨준다.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앉아 왕권을 보호하고 왕이 정사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을 보이던 권력의 보루인 군정 안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었다.

세종은 빼어난 효자, 모범생, 영재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반항아가 아니다. 반항아의 모습은 큰형님 양녕에게서 질리도록 봤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부왕의 배분정책을 이어 더한층 불교 억압에 몰두한다. 태종 때 화려한 사람과 노비 중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를 모두 처리했다. 연례행사인 도성 내의 경행을 폐지시켰다. 성 밖 승려는 성내 출입을 금하고 동진출가를 엄금했다.

세종 6년 4월에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 자언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만들었다. 이념과 종지에 따른 통폐합이 아니라 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같은 무작위 재단이었다.

남았던 7종을 선종, 교종의 두 종파로 축소한 것이다. 전국에 36개 사찰단 남겨 선종 18사에 전담 4250결, 각 절의 스님 수 도합 1970명, 교종 18사에 전담 3700결, 스님 수 1800명으로 제한했다.

서울 안의 흥천사를 선종의 도회소(총본사)로 삼고 흥덕사를 교종의 도회소로 삼아서 나이 들먹히고 덕행 높은 승려로 하여금 양종의 제반 사무(寺務)를 관장하게 했다. 태종에 의해 전국 사찰이 242사로 축소되었는데 세종 때는 사정없이 줄여서 36사만 남는다. 선교 양종 36사, 전담 7950결, 총 승려 수 3770만 남는다.

종파, 사찰을 축소 폐합하니 거기에 속한 저지 않은 토지와 노비가 국가 재산으로 몰수되었다. 아버지의 뜻, 유학자들의 뜻에 순종한 모범생 세종의 중년 이전 모습이다. 세종초 초반에 두 차례에 걸쳐 불교 압박에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승려들이 중국으로 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국내의 심한 불교 박해 사정과 이에 대한 구원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 명황제 성조(成祖)는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그 호소가 다소 효력이 있었다. 세종은 그 사건으로 배분정책을 늦추고 명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잠시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불교에 대해서 참으로 인색하고 용렬하기까지 하다. 척불의 기록은 세세한 것까지



남한강에서 바라본 강월현과 삼층석탑 너머에 영릉의 원찰 신록사가 있다.

### 척불정책에 승려들 항의...독실한 불자 명황제에 호소도 영릉은 조선 왕릉 최초 합장릉, 예종 때 여주로 옮겨 쇄락했던 신록사 원찰 되면서 확장, 성종 이후 옛 이름 찾아

놓치지 않지만 불교의 기여는 1단짜리 기사로 취급되거나 외면한다. 국사, 왕의 의지가 절대적이던 시대의 유물이다. 불교 탄압의 절정은 성종 세종 때다. 석가모니를 석씨, 부처를 불씨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세종이 문헌 영릉(英陵)은 방문객이 가장 많은 능이다. 주변 볼거리가 많아 여행, 소풍, 산책의 명소다. 수려한 남한강, 신록사, 영월루, 명성황후 생가, 목야 불교박물관이 머뭇는 거리에 있다. 성군의 능답게 능여 조경 또한 일품이다. 왕위에 있었으나 능호를 얻지 못한 연산군묘, 광해군묘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들의 묘에는 관리소는 고사하고 계은공의요원 한 명 없다. 역사의 심판은 소멸 시효가 없다.

영릉이 처음부터 경기도 여주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1446년 왕비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헌릉(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쪽에 조성하여 그 무덤을 왕의 수릉으로 삼았다가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합장했다. 조선 왕릉 최초의 합장릉이다. 현인릉이 있는 대모산은 육산이다. 물이 많아 능지로 부적합하다. 그 래도 효성 지극한 세종은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자 했다.

세조 때 영릉이 불길하다는 논의가 대두되었으나 서거정 등이 반대하여 옮기지 못하고 예종 1년(1469)에 현 위치로 천장했다. 20년 동안 아버지 곁

에 있다가 떠난 효자의 심정이 비통했을 것이다. “아바마마, 소자는 떠나기 싫습니다. 망극한 불효를 어찌하오리까!” 세종의 탄식이 흠뻑 젖은 자리에는 흔적조차 없다. 현재 국경선 영내에 영릉이 있었다. 돌조각 하나라도 흔적을 확인하고 싶어 알음알이로 국경선에 연락하니, “아무 것도 없다. 사진 찍는 것은 절대불가다” 라는 대답이다. 천장 때 그 자리에 묻었던 옛 석물들은 1973년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가 발굴해서 청량리 세종대왕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올해는 영릉 제향일(4월 8일)에 맞춰 방문했다. 여느 제향보다 성대하다. 참반원(제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덟집이 1000여명이 남는다. 역시 대단한 세종대왕이다. 탄신일에는 주무 장관이 참석하고 한 때는 대통령도 참석했다.

세종은 6명의 부인에게서 18남 4녀를 생산했다. 아들 숫자로는 조선 역대 왕들 중 넘버원이다. 그러나 부모복은 있었지만 자식복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 아들(문종, 세조)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들의 이름에는 어둠의 그림자, 피비린내가 엉겨 있다. 안평대군(계유정난 연루 36세에 사사), 광평대군(20세 요절), 금성대군(단종 복위 묘의 32세에 처형)도 마찬가지다. 복업 짓는 일에 소홀해서 그런가.

머뭇는 곳에 영릉의 원찰 신록사가 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사세가 쇠락하다가 1469년 영릉의 원찰이 되면서 절이 확장되고 이듬해 예종 비 정희왕후가 보은사로 개칭했다. 세종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을 담았다. 사찰이 유생들의 유희장이 되고 승려가 천민 취급 받던 시대에 원찰로 정해지다는 것은 행운이다. 성종 이후 성리학이 득세하자 왕릉의 원찰 제도가 없어지는 풍토가 되어 신록사는 옛 이름을 되찾았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영릉의 무인석.

### 신비의 인도산 자수정

새봄 행운의 보석 단주와 목걸이 수입

**혈액순환·기억력증진·어깨통증에 효과  
살아숨쉬는 1등급자수정 목에걸면 눈피로없어**

살아있어 행운과 건강을 주는 보석이라는 인도산 자수정이 국내 처음 수입됐다. 자수정은 본초강목(本草綱目)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병을 치료하는 보석으로 대체의학에 이용된다. 생명 진화적 파장은 수백만(32786KHz)의 규칙적인 에너지를 자동으로 방출한다. 따라서 자수정이 내뿜는 생기는 체내의 유해독소는 제거시키고 몸의 반란스를 잡아주어 잠재과위를 향상시킨다. 천연 자수정은 저온에서도 다량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하여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킨다고 기록되어있다.

급변 반입된 자수정은 1등급으로 색상과 크기를 일정하게 가공한 단주와 목걸이 세트로 목에 걸고 다니면 세련되고 품위 있는 보석으로 혈액순환, 기억력 증진, 어깨통증,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 가격은 58,000원으로 불자들에게 소중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특급등기료 보내드립니다)

금剛덕터 / 전화 (02)734-7300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자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전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통록>과 <바로보인 전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원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통록 전5권 - 58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전문염송 1~10권 : 105,000원 (30%할인)

- 바로보인 전통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안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중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전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 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싱하
- 앞뜰에 국화꽃 피고 북산에 찾는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 "대한민국의 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정부 및 서울신안 출원제품임 (2007년 한국불교박물관의 출품작)

조립식 건축	H-빔 제작설치	이동식 주택및팬사	전통한옥 철골조공사
--------	----------	-----------	------------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라니 하우스만의 기술적인 만능!!!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쁜 시공에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중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실채,사방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니하우스**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용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